

9월 보고서

# RaonAtti 4th

Chiang Mai , Thailand



- \* 9월 전체 일정
- \* 캠프
- \* 한국어 & 문화 교육
- \* Korea room 꾸미기
- \* 생활
- \* 하고 싶은 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	9	10 (camp)	11 (camp)
			-태국도착 -YMCA스텝함께 저녁 식사	-O.T -환전 및 장보기 -웰컴파티	-람팡 라사밧대학교친 구들과함께 Slirunka wittiya school 캠프	-캠프진행 ice breaking game 그룹별 수업진행
12 (camp)	13 (camp)	14	15	16 (camp)	17 (camp)	18 (camp)
-노래하고춤추고 -람팡대학교로 복귀 마무리미팅	-점심먹고 썬태우타고 버스터미널이동->치앙 마이행 에어컨버스탑승	-태국어수업(p'뿌) -local government 경찰서 방문	-노인봉사 교육 -시장구경 -Y 캠프준비	-YMCA 왓 메하헨 스쿨 캠프 참여 ice breaking game 노래 /게임 /밥퍼	-캠프진행 한글이름지어주기 곰세마리 영어&한국 밥퍼 / 간식나눠주기- 휴대폰통화충전 (간사님과 첫통화)	-YMCA 주말학교 ice breaking game -초등학교로출발 게임진행/간식/작별 -마을 장례식참관 -워킹스트리트 구경 (배낭여행 한국인 만남)
19	20 (Day off)	21	22	23	24	25
-Natang coffee 처음방문한날 -자전거타고 맛보기로 보상간날	-Natang coffee -개인시간 -보상구경/쇼핑	-태국어수업 -JKY프로그램준비	-람팡 YMCA -람팡 JKY 방문 한국문화에대한수업진 행(PPT&동영상 한복입어보기/강강술래 /추석!새벽부터 만든 송 편시식)	-태국어수업 -태국음식수업 (태국전통음식직접바나 나옴으로만들어봄)	-한국어수업준비	-YMCA 주말학교 한국어수업진행 (노래&게임& 기본적인 인사방법)
26	27 (Day off)	28	29	30	1	2
-YMCA 주말학교 한국문화수업 (한복색칠하기)	-청소 -자전거 타고 동네 주변 둘러보기	-태국어수업 -싼캄펑 고등학교 수업진행(한국문화골든 벨진행)	-태국어수업 -Korea room 꾸미기	-Korea room 꾸미기 (한옥/한글/한국문화 /Raonatti 소개)	-Korea room 완성!	-YMCA 주말학교 한국어수업진행

# “캠프”



[1] 스리랑카 스쿨 잉글리쉬 캠프  
with 람팡 라샤밧 대학교 영어교육과  
\* 일정 : 2010-09-10~09-12

## ★ "적응"

9월 10일, 태국 도착 후 3일 만에 첫 "캠프" 를 떠났다.

치앙마이에서 한 시간 반 떨어진 람팡 라샤밧 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스리랑카 스쿨" 이라는 시골의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캠프였다.

태국어는 물론 교육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던 우리는 사실 기대보다 더 큰 걱정을 가지고 캠프를 출발했다.

하지만 이 3일간의 캠프에서 우리는 "팍치" 냄새가 진동하는 태국 음식들에 적응하고,

실 새 없이 들려오는 태국어에 적응하고, 항상 웃고 있는 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적응캠프" 로써의 캠프가 되었다.

태국 도착 후, 며칠 동안 태국음식을 접했지만, 사실 그 3일 동안은 환영파티나 외식 등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우리가 진짜 "태국 음식" 을 경험한 건 이 캠프였다. 처음 "스틱키 라이스" 라는 밥을 먹게 되었는데,

같이 밥을 먹던 태국 친구가 손으로 먹는 것이라고 말해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한테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다.

밥을 손으로 떼어내서 주물거린 뒤에 먹는 이 밥을 지금은 다들 좋아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허브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과일들, 퐁얌꿍 국물 맛이 나는 컵라면, 날돼지고기와 내장을 피에 버무려 먹는 음식 등, 짧다면 짧은 3일 동안 우리는 재밌게, 가끔은 혹독하게 태국음식에 적응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3일 동안 대학생들, 교수님, 그리고 수업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같이 자면서 태국 사람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과 책을 통해 알아갔던 태국사람, 태국예절과는 많이 다른 진짜 태국사람과 진짜 태국예절을 조금씩 배워갔다. "와이(합장)" 하는 방법부터, 식사예절, 모든 일과 끝에 함께하는 불교의식, 화장실 문화 같은,

같이 살지 않으면 배우기 힘든 문화까지 캠프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 ★ "대학생 교류"

이번 캠프는 YMCA주관이 아닌, 람팡 라샤밧 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영어캠프였다. 우리는 캠프 하루 전날, 람팡 라샤밧 대학교에 찾아가,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기도 하고, 캠프 물품도 같이 나르는 등 활동을 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항상 웃고, 항상 노래하는 이 친구들에게 되려 우리가 다소 어색해했다. 하지만 3일 동안 함께 노래를 하고, 수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서로 친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 언어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고, 공유하는 이슈도 조금씩 달랐지만 이 친구들이 보여준 "open mind" 에 우리도 점점 적응하면서 서로 교류 할 수 있었다. 서로 전통문화 퍼포먼스를 하는 거창한 이름의 문화교류 캠프가 아니더라도 같이 지내면서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우리도 대학생 교류를 경험했다.

## ★ "교육"

유아교육과나 교대생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자가 전무했던 우리 팀에게 이 캠프는 이 이후로 아이들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좋은 교과서가 되었다.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부터, 수업 전 회의하는 모습, 분위기를 풀어주는 아이스 브레이킹, 여러 가지 교육에 유용한 노래와 게임은 이 이후에 진행한,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많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교육방법들보다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개인별 경쟁을 낮설어 하고 그룹별 경쟁을 좋아하는, 그리고 캠프가 끝나고 헤어질 때 모든 선생님들의 이름을 받아 적어가는 정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 [2] 왓 메하헨 스쿨 캠프

\* 일정 : 2010-09-16~09-18

### ★★ '우리' 의 첫 캠프

16일부터 3일동안 YMCA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거리의 시골학교인 <왓 메하헨 스쿨> 에서 초등학생 40여명과 함께 캠프를 진행했다.

YMCA 스태프들이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동안, 우리는 오전 두 시간, 오후 한 시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과 한국어 노래, 한국 이름 지어주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점심시간과 간식시간 배식을 했다. 캠프 동안 우리는 수업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시간동안 쉬거나 마을을 둘러보는 등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 스리랑카 스쿨 캠프 때 보다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왓 메하헨 스쿨 캠프는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습하고, 진행한 첫 캠프였다는 점에서 노력도 많이 들어갔고, 보람도 컸던 캠프였다. 람팡 라샤밭 대학교 친구들이 진행하던 수업에서 배운 노래와, 우리가 고민해서 선정한 노래, 춤을 연습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기획하느라 수시간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기획 회의 결과, 우리는 곰 세 마리, 머리어깨무릎 등의 노래와 춤을 준비했고, 코끼리코 게임, 한국어 이름 지어주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 ★★ "캠프 뒷이야기"

우리가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한 캠프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혹독하게 피드백을 진행했다. 이 캠프 이후로 진행할 YMCA주말학교 한국어 수업, 마을 학교에서의 수업 등 계속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기획, 진행했던 이 캠프에 대한 피드백은 그만큼 중요했다.

잘된 점은, 우리가 처음보다 더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열흘이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태국어로 한두마디나마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서 아이들 한번 안아본 적 없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평가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큰 소득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태국어 실력에 아쉬움이 느껴졌고, 여전히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춤에 있어서 조금의 어색함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해 힘들게 기획한 프로그램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우리 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기에, 잘못된 점에 아쉬움이 컸던 캠프였지만, 아이들과 서로의 얼굴에 물감을 묻히고, 같이 노래하고 뛰어다니면서 느낀 정과 활기로 좋게 기억되는 캠프였다.



# 한국문화교실 [1] 자캄스쿨

\* 일정 : 2010-09-22

한국에서는 다들 송편을 빚으며 차례를 지내고 있을 22일.

머나먼 이국 땅 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람퐁 지역이 자캄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을 소개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을 소개하면 좋을까.. 라고 회의를 하던 우리는 때마침 방문하는 날이 추석이기에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방향을 잡고, 한복과 송편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22일 당일 아침 6시부터 일어난 우리는 한국과는 다른 쌀가루와 팥 등의 재료 때문에 고생하고, 손수건과 냄비에 구멍을 내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빚은 150개의 송편을 가지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줄 학생들을 만나러 갔다.

스텝과의 사전 미팅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학생 수는 50여명.

하지만 실제 도착해서 우리를 맞이해준 학생 수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였고,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 또한 100여 명씩 3번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었다.

사전에 정확한 수업시간과 학생 수를 알지 못해 당황하다 보니 준비 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팀원들 간에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며 보완을 해주었다면 조금 더 나은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 보여주고 맛도 보게 하는 송편을 통해 수업 분위기도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사전에 스텝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수업 전 정보를 정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수업이 집중률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 태국쌀가루 + 천연색소로 반죽준비



(2) 팥 & 땅콩+설탕 소준비



(3) 모두다같이 송편만들기시작

## ★추석날 태국에서 송편만들기



재미있고,의미있는 시간 :)



(4) 물에 흠뻑 적신 손수건깔고 찜기에 송편 투입



(5) Y 스텝분들과 함께 시식  
...송편맛은 장담못함 ^^



(6) 4개의 손수건 & Y스텝(P' 돈) 냄비구멍 온갖우여곡절끝에 송편 150개

완성! 끝



## 싼캠펙 고등학교 한국문화교실

\*일시 : 2010-09-28

1주일 뒤 이어진 싘캠펙 고등학교에서의 한국 문화 교실!!

1주일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전 학생 수와 수업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사전 회의 결과 그리 많지 않은 30여명의 학생이기에 간단한 자기소개 한국어 수업과 활동적인 수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골든벨 퀴즈쇼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예상대로 자캄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순조롭게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도 즐거워했지만 아쉬웠던 점은 자유로운 분위기다 보니 서로 간에 답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준비한 10문제는 한창 한류에 빠져있는 이곳 고등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도 골든벨 컨셉 자체는 매우 성공적 이었다는 자체 평가 아래 다음 번에는 그룹을 나누어 한다면 서로가 답을 공유하는 것을 자연스레 인정하며 수업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 한국어 교실

싼캄펑 YMCA 주말학교

주말이면 YMCA에 영어 수업을 받으러 오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였다.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실이 아닌 한 두 번의 일회성 수업이기에 한국어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음, 모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자기소개를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간단한 노래와 게임을 통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노래를 아이들은 너무나도 생소한 발음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아이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울동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우리는 스스로가 어색해 함을 느꼈기에 아이들 역시 주눅이 들어 하며 잘 따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첫날의 수업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1주차 둘째 날 수업부터는 노래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발음하기 쉽도록 천천히 알려주며 노래와 자기소개 수업을 병행하였으며, 우리 스스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와 울동을 즐기며 아이들과 재미나게 수업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게임을 통한 자기소개하기에서 잘 하지 못한 아이에게는 벌칙을 주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즐거워했지만 종종 벌칙을 받았을 때 싫어하는 기색을 보인 아이들도 있었다. 수업할 당시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우리끼리의 평가 시간에 깨닫게 된 점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친구들 앞에서 벌칙을 받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아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통한 수업을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는 벌칙이 아닌 잘한 의미에서의 상을 준다면 모두가 즐거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주간의 한국어 수업은 11월이면 마을에 들어가 한 달 이상 수업을 하게 될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과 어떻게 호흡하며 지내야 할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 ★★★ KOREA ROOM 꾸미기

9월 28일 방 꾸미기 Mission을 받고 회의를 했다. 방 두 곳을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204호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201호는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소개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꾸미기로 했다. 그리고 29일, 전날 회의 했던 대로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한 물품들(페인트, 붓 등)과 포스터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방 꾸미기 시작! 포스터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준비물도 사고, 방에 붙일 여러 자료를 만들었다. 태극기에 대한 설명, 한류, 한식 등에 대한 포스터 등을 만들고 포토샵으로 한옥, 한글, 관광지에 관한 보드를 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준비가 된 상황에서 처음 계획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페인트로 칠하기 시작했다. 5명 모두 페인트를 다뤄본 경험도 벽화를 그려본 경험도 없어서 처음엔 '잘 될까 ...'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우리 팀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작업을 진행했더니 생각보다 결과물이 훨씬 잘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 얘기가 항상 나왔던 우리 팀이 무려 10시간 동안의 페인트작업을 무사히, 즐겁게 했던 게 가장 큰 성과였다. 그리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해뒀던 보드와 포스터 등을 붙이고 방 꾸미기를 마무리했다. 처음 YMCA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일본방, 캐나다방 등 다른 방은 잘 꾸며져 있었는데 한국방이 부실했던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 마침 우리에게 방 꾸미기를 위한 시간이 생겨서 3일 동안 방 꾸미기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한국과 라온아띠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채워나가고 싶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했다.



Before



After



# 태국에서의 생활

## ★ 음식



- (1) 팍치 :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는 우리팀 이지만 다들 팍치 만큼은 쉽게 적응 못 하는 것 같다. 팍치는 대부분의 태국 음식에 꼭 들어가는 허브종류인데, 박소영단원은 아예 몸에서 받질 않아서 특히 힘들어하고 있다. 팍치를 골라내는 기술이 늘고 있다. 다른 팀원들은 못 먹지는 않지만 아직 참고 먹는 수준. 지금은 YMCA 스태프들이 한국인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서 요리할 때나 음식점에 가서도 빼달라고 부탁해줘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팍치가 가득한 음식을 먹을 일이 걱정이다.
- (2) 튀긴 음식 : 아침부터 닭튀김, 생선튀김 등등의 튀김이 당연스레 식탁에 오른다. 길에서나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튀긴 음식을 쉽게 볼 수 있다.
- (3) 로티 :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튀겨서 연유를 듬뿍 바른 것이 5바트, 계란이 추가되면 10바트인데 우리가 맛있다고 했더니 자주 사주신다. 살찌는 주범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 (4) 맵 : 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맵다. 매운데 달고, 그러면서도 시다. 이런 복합적인 맛이 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코코넛, 라임, 그리고 태국 고추 등의 음식재료를 우리가 이전에 별로 경험하지 못해서 더 신기한 것 같다.

**\*\* 태국 음식수업** : 따로 시간을 내서 태국음식을 만들었다.

-허묵 : 바나나잎을 배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양념한 고기를 넣고,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찐다. 맵지만 부드럽다.

-텃만무 : 돼지고기를 다져서 고춧가루 등으로 빨갛게 양념한 후 튀긴다. 매운 고기튀김 맛.

-카오똥맛 : 대나무 잎에 쌀을 넣고 바나나나 땅콩을 넣은 후, 다섯 개를 엮어서 끓이는데 이 때 빈 바나나 잎을 넣어줘야 잘 익는다는 믿음이 있다.





## ★★ 사람

(1) YMCA스텝 : "This is your house, we are family." 라고 늘 말씀해 주신다.  
 3기까지 라온아띠를 받아봐서 그런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배려해준다.  
 우리 문화를 잘 알고 계셔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도 없었고, 그래서 적응하는데 절대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을로 들어갔을 때 새로이 문화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2) 까터이 : 온지 3일차에 간 캠프에서 처음 까터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단지 여성스럽고, 여자애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lady boy란 말을 듣고는 좀 놀랐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걸 보니, 곧 우리도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까터이를 여느 여자친구들처럼 함께 씻고 잘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더 많은 경험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 ★★★ 기타생활

(1) 모기 : 태국생활에 가장 큰 적이다. 저녁식사 때나 밤에 밖에 나갈 때면, 긴 바지에 긴 팔을 착용해야 한다. 다들 모기자국 때문에 다리가 얼룩덜룩 해지고 있다.

(2) 워킹스트리트 : 우리나라의 5일장 개념일까 했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공간도 생기고, 문화행사도 한다. 생필품, 사람, 문화, 지역사회가 한 데 섞인 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3) 불교 : 생활 속에 불교가 녹아있다. 뭘 하든, 어딜 가든, 시작과 끝에 절을 한다. 집집마다 불상이 있고,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걸 보면 어린 나이부터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접하고 있다. 부디스트 데이 때도 보면, 초등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한 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공연한다. 종교가 지역사회의 결속에 큰 영향을 준다. 과거에는 사원이 학교의 역할도 했었다고 하니, 정말 종교라기보다 생활인 것 같다. 여담이지만 YMCA의 직원마저 불교신자라는 것은 놀랍다.

(4) 전통문화 : 이 곳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통 춤이나 악기에 대한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와서 오히려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새로운 문화가 흘러 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문화의 부리에 대한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부터 필요한 것 같다.  
 (여기서의 교육이란,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 RaomAtti ★★ 하고싶은말

도착하자마자 캠프도 가고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출국 전 했던 걱정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냥 부딪혀보고, 그걸 즐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글씨를 모르는 까막눈이 되 버려서 많이 답답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태국어에 서툴지만 요즘은 그것마저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날씨도, 음식도, 어딜 가나 돌아다니는 작은 도마뱀도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있지만 큰 도마뱀 뚝뚝 만큼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가끔 출현할 때마다 도망 다니고 있어요 ㄹ\_ㄹ  
모기도 엄청 많아서 팀원들(특히 소영언니가)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관찮아지겠죠? 10월 초의 날씨는 아직 덥지만  
곧 겨울이 온대요! 태국의 겨울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태국을 알기에는 너무나 짧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태국과 만나게 될 날들이 더 기다려집니다. 싸늑 막막!!!



천편일률적인 한국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다, 맑은 하늘아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며 더 나은 활동을 위해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느라  
정신 없이 살기도 하고, 쉬는 날이면 자전거와 함께 숙소 근처 작은 카페에  
서 기타치고 노래하는 신선놀음을 하며 여유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간에 크고 작은 갈등들도 있었지만, 1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서로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맞춰갈 수 있는 건 맞춰가는,  
그래서 무엇을 하던 행복한 태국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딱 지금처럼만 서로를 배려하고 팀 활동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 나간다면 라온아띠 태국 팀 뿐만이 아닌 저희를 만난  
모든 태국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태국 팀 화이팅!!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음식에 대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너무 잘 먹어서 탈이네요. 얼굴에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가장 어려운 건 말이 안 통한다는 점 같습니다. YMCA 스텝 분들과는 영어로 아동바둥 소통하고 있지만, 영어마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웃지요 하하하...태국어 공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계속 말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묻고 쓰고 하다 보니 처음보다는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태국어 메뉴판을 읽고 음식을 주문하는 그 날이 오길. 하지만 되려 우리 다섯 명 배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점 덕에 우리끼리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팀원끼리 친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하하.

활동적인 면이나 생활 면에서는 저는 불편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5개월 치 일정표를 받았고, 가끔 한국 음식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잘 대해 주세요. 손님으로 온 게 아닌데 말입니다.

다만 그래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다잡아야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냈네요.

남은 4개월도 저희 다섯 명 무사히, 잘 지내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한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처음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위해 짜여진 5달의 일정표를 받고, 간사님 말씀대로 정말 태국Y는 라온아띠를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날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쌀쌀함이 느껴져요. 9월 8일 태국에서의 첫날밤에 천둥번개로 인해 정전이 되었고, 요즘도 매일 밤이면 비가 쏟아집니다.

개인적으로 태국 음식 면에서는 딱치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팀원들이 먼저 테스트를 하고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태국 삶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

덧붙여서 태국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서, 태국에서 라온아띠로 보낼 5개월동안

더 많이 웃고 행복해지고 사랑을 나눌수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갈수 있을것같아요. 9월 한 달은 몸도 마음도 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위밍업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4개월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즐겁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의 태국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온아띠 쑤쑤 !!



한 달 동안, 우리는 영어캠프, 한국어 수업, 지역기관 방문 등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프로그램들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공부가 되는 건 태국에서의 생활 그 자체인 것 같다. 람팡 라샤밧 대학교 친구들과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도 물론 교육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그보다도 그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태국의 젊은 사람들과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싼캄펑 YMCA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언어나 문화적으로 배워나가고 있지만, 그보다도 팀원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활 그 자체에서 배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어찌면 9월 한 달간 가장 큰 배움이었고, 어찌면 앞으로도 가장 큰 배움이 될 것 같다. 덤으로 싸-찐, 람팡 친구들, 진흙탕에 빠진 슬리퍼 같은 추억들도 얻었고, 7kg도 얻었다..^^ 생활이 더 힘들어야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아래의 사람들부터 도와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던 시절에 태국에 왔고,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만에 이런 생각이 열어지고 있다. 내가 어찌든 배울 수 있고, 상대가 누구든 배울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 태국사람들이 사는 방법, 게으름과는 엄연히 다른 "여유" 를 조금씩 배우고 있다.





มุก เพชร นิล หยก ทับทิม

RaomAtti